

자투리 시간에 정리하기 좋은 고전소설 빈출 포인트.

제작 : 조남희(주간 리트 저자)

(실전에서 1순위는 맥락에 의거한 사실 일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고전소설의 플롯.

고전소설은 대표적인 플롯들이 있습니다. 해당 플롯들을 간략하게라도 알고 있다면, 실전에서 낯선 작품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작품 맥락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영웅 서사

기본 구조 : 영웅의 신이한 탄생 → 외부 갈등 → 조력자의 도움 → 극복

일반적인 영웅의 특징 : 신이한 탄생, 많이 먹음, 뛰어난 능력 등

영웅 서사는 고전소설 중 가장 전형성을 띠는 유형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구조를 알고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 만약 영웅 서사 작품이 나올 때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지문 독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1) 평가원은 특정 장면을 출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 장면별로 중요한 지점은 탄생이면 인물 내력 체크, 외부 갈등이면 갈등 요소 체크, 조력자 도움 장면이면 어떻게 도와주는지 체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영웅 소설은 일반적으로 저런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영웅의 특징은 소대성전(EBS 연계 작품)과 같이 일반적인 영웅의 특징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영웅 소설도 종종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이는 이 작품의 특이점이므로,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가볍게 생각할만한 지점입니다.

- 간신·충신 & 처·첩

기본 구조 : 간신(첩)과 충신(처) 사이의 갈등 대체로, 간신으로 인해 충신이 고통받음. 이들의 갈등 양상에 대한 파악이 핵심적.

간신·충신 & 처·첩이 주된 작품은, 출제된다면 이 갈등 양상을 다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해당 서사임을 인식했다면, 정확하게 갈등에 초점을 맞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간신·충신 갈등이 첨예하게 나오는 소설이라면, 등장 인물이 어렸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각각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전소설에서 인물 정리가 중요하지만 간신·충신(이는 대가쪽으로 다양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처·첩에서도 동일합니다) 인물 정리와 주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애정 서사

기본 구조 : 만남 → 혼사 장애 → 극복?!

애정 서사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독해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서사입니다. 애정 서사의 경우는 혼사 장애의 원인, 즉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수능 기출 중, 운영전을 보면, 애정 소설에서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원, 몽자류 소설

기본 구조 : 초월계 → 현실 → 초월계 / 현실 → 꿈 → 현실

이원, 몽자류 소설이라는 큰 틀 안에 영웅, 간신·충신, 애정, 권선징악 플롯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제시된 각각의 갈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참고) 이원, 몽자류 소설의 특이점은 결국 이름 그대로 해당 소설의 구조(현-꿈-현)가 핵심입니다. 작중 배경이 전환될 때는 필히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2. 보편적인 고전소설 핵심

- 고전소설도 소설이다.

⇒ 고전소설도 결국 '소설'입니다. 현대소설만큼 치밀한 경우는 드물지만, 결국 고전소설도 독해 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 인물

1) 호칭 변화 파악 ⇒ 고전소설에서 지문 내용 파악 및 사실 일치 문항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고전소설은 예로 김시습 = 김선비 = 김공 등과 같이 인물의 호칭이 다양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물 캐릭터 파악 ⇒ 해당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예로 사씨남정기의 경우 사씨, 유생, 교씨 등의 캐릭터 파악)

3) 인물 내면 심리 ⇒ 이는 소설이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인물 간 관계, 평가 ⇒ 인물들 간 관계(박씨전의 경우 박씨와 용골대의 관계는..)를 파악하고 특정 인물이 다른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사건

⇒ 역시 고전소설도 '소설'입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사건 중 갈등이 있다면, 여기서 인물 간 갈등(원인과 양상), 그리고 인물의 내적 갈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배경

⇒ 고전소설에서 배경 전환은 명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 일치 포인트로 배경이 답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원론, 몽자류의 경우 공간 체크의 중요성은 높아집니다.

3. 몇 가지 팁

1) 고전소설에서 대화가 긴 경우는

특정 인물의 주장, 요약, 예언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정 인물의 주장일 경우 주장의 내용 및 주장 주체

요약일 경우 요약했다는 사실 → 표현상의 특징으로 물어볼 가능성 높음

예언 → 꿈에서인지, 현실에서인지 예언의 계시 배경 파악과 내용 파악

2) 풍자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박지원) 등의 작품과 조선 후기 대표적 작품들(흥부전 등)은 주제 의식이 명확하니 이런 작품은 가볍게 알아두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1)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플롯에 대한 이해로 맥락을 빠르게 파악 + 핵심 요소 사전적 인지

⇒ 빠르게 파악한 맥락을 등에 업고 그 맥락상 중요한 포인트 + 인물, 사건, 배경 요소를 체크하며 지문 독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문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선지 판단을 선지 구성 원리에 입각해 진행한다.

2)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핵심을 콤팩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처럼 콤팩트하게 자투리 시간(통학 시간, 혼밥, 화장실 등)에 반복해서 볼 자료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고전소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실전에서 위와 같이 최소한의 플롯을 알고 있다면, 맥락 파악에 느끼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4) 해당 자료를 통해, 플롯과 핵심 요소를 익힌 뒤 그것을 기출 분석에서 스스로 찾아보며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학은 독서에 비해 의식적으로 기출 분석을 근간으로 한 본인의 독해를 적용하기 수월한 영역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고전소설 기출 분석을 잘 진행해, 지문 자체에 대한 익숙함과 선지 판단의 포인트를 스스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 조남희(주간 리트 저자)